



# 2001년 3/4분기 정보통신부문 고용동향

협회 조사연구실

2001년 3/4분기 정보통신부문 인력은 총 1,218,889명으로 2001년 1/4분기대비 1.2%(14,581명) 감소하였으며, 국내 경기 둔화로 인력 증가율은 잠시 주춤하여 전분기 인력 규모보다 다소 감소한 수준에 머물렀다. ([표 1-1] 참조)

[표 1-1] 정보통신부문 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1. 1/4	2001. 2/4		2001. 3/4	
			증감율)		증감율)
정보통신산업 인력	522,015	514,494	-7,521(-1.4)	502,797	-11,697(-2.3)
정보통신서비스	98,203	95,962	-2,241(-2.3)	93,965	-1,997(-2.1)
정보통신기기	331,846	326,061	-5,785(-1.7)	317,697	-8,364(-2.6)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91,966	92,471	505(0.6)	91,135	-1,336(-1.4)
정보통신 관련산업	172,933	172,364	-569(-0.3)	170,010	-2,354(-1.4)
정보통신공사업	65,170	64,756	-414(-0.6)	64,177	-579(-0.9)
정보통신기기 유통업	107,763	107,608	-155(-0.1)	105,833	-1,775(-1.6)
타산업 정보화 인력	548,103	546,612	-1,491(-0.3)	546,082	-530(-0.1)
합 계	1,243,051	1,233,470	-9,581(-0.8)	1,218,889	-14,581(-1.2)

※ 「2001년 정보통신산업 통계연보」를 통해 발표된 확정치에 따라 2001년도 분기별 자료를 update 함.

2001년 3/4분기에 들어서 정보통신부문 인력은 다소 감소한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경기둔화로 인한 기업의 추가부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과 출자전환, 구조조정 등으로 신규부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인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2001년 3/4분기 고용의 특징은 전 산업 부문에서 인력이동이 심하였으며, 특히 정보통신산업 부문의 인력규모가 전분기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산업 인력은 2001년 2/4분기대비 2.3% 감소한 502,79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정

정보통신관련산업은 2001년 2/4분기 대비 1.4% 감소, 타산업 정보화 인력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2/4분기에 이어서 세계적인 IT수요의 둔화로 인하여 그동안 성장을 견인한 IT산업이 다소 위축됨에 따라 그에 관련된 유통업의 성장을 정체와 더불어 타산업 분야도 기업체의 사업경영약화 등으로 고용 인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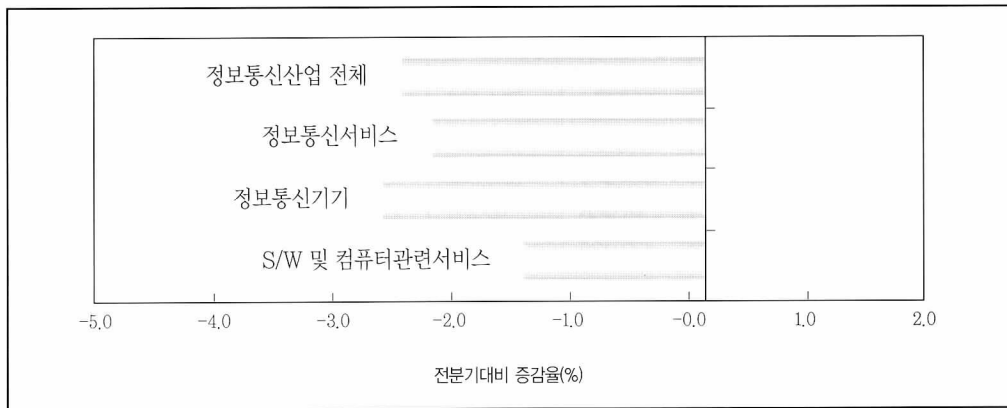
부문별로 크게 감소된 인력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산업에서는 정보통신기기 부문이 2.6%, 정보통신관련산업 중에서는 정보통신기기 유통업 부문이 1.6%, 타산업 중에서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부문이 1.3%의 고용인력 감소율을 보였다.

## ○ 정보통신산업

2001년 3/4분기 정보통신부문 인력은 전체적으로 전분기(2001년 2/4분기)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의 전분기 대비 증감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인력과 정보통신기기 부문 인력,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부문 인력이 각각 2.1%(1,997명), 2.6%(8,364명), 1.4%(1,336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 참조)

[그림 1-1]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인력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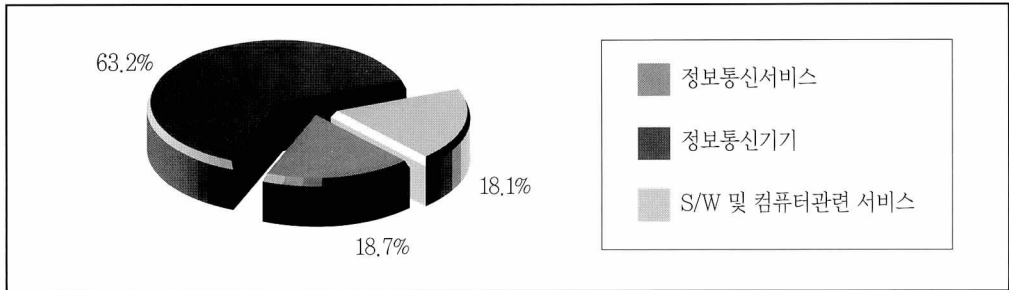
정보통신산업 인력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가 93,965명으로 전체 정보통신산업 인력에 대한 비중이 18.7%이며, 정보통신기기가 317,697명으로 63.2%,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는 91,135명으로 18.1%의 비중을 나타냈다. ([그림 1-2] 참조)

특히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 인력의 비중이 2000년 4/4분기에는 17.2%, 2001년 1/4분기에는 17.6%, 2001년 2/4분기에는 18.0%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이 인력감소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부가통신서비스는 인터넷과 관련된 신산업이 잠시 주춤함에 따라 인력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송서비스부문은 내수시장 확대에 기인하여 인력이 소폭 증가하였다.

정보통신기기의 경우에는 통신기기 부문에서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성장둔화에 따른 인력 감소가 나타났으며, 정보기기 부문에서는 국내의 PC 시장이 지난 분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인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부문은 SI업계의 구조조정에 따라 인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인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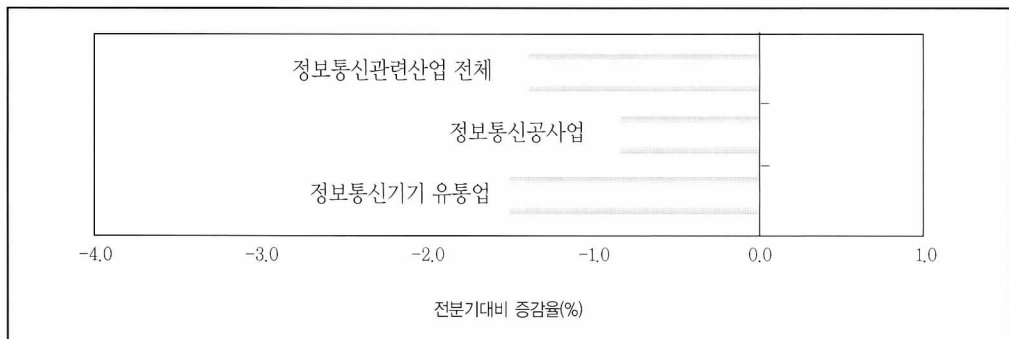


### ○ 정보통신관련산업

2001년 3/4분기 정보통신관련산업 인력은 2001년 2/4분기 대비 1.4%(2,354명)감소한 170,010명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이 0.9%(579명), 정보통신기기 유통업부문이 1.6%(1,775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1-3] 참조)

[그림 1-3] 정보통신관련산업 부문별 인력 증감율



### ○ 타산업 정보화 인력

2001년 3/4분기 타산업 정보화 인력은 전분기대비 0.1%(530명) 감소한 546,082명으로, 2001년 3/4분기 전 산업 상시종사자 11,118천명<sup>1)</sup> 중 4.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001년 9월 통계청 고용동향